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이정일 목사

(아름다운 동행교회)

우리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다

오지가 아닌 한 한국사회는 일 년 내내 쉴 새 없이 돌아간다. 휴식도 없다. 이제 편의점, 마트, 헬스장, 동네 병원도 연중무휴다. 뛰어난 설교자였던 랄프 사크만(Ralph Sockman) 목사는 “역사의 중심점은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있다”고 말했지만, 피곤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에 크리스마스는 휴일일 뿐이다. 이날 많은 이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외식을 한다. 물론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설렘은 없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날 기념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힌다. 하지만 다수는 이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여긴다. 정확한 날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그래서 이날은 사

랑과 소망, 평화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 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해피 홀리데이만을 입에 올리고 있다. 지금 모든 게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받는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부르시고 세우시고 위임하시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한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선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 언제나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다. 사람들은 죄란 개념을 불편하게 여긴다.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확신을 갖는 것이 독선과 교만으로 비취진다. 이제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 세상은 적(敵)이 점령한 땅이며, 우리는 점령지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 타락 이후,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의 결정이 구원이란 영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 생각

은 어리석거나 미숙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문화와 기술이 발전할수록 성경과 속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 이 땅에선 사랑, 십자가, 구원, 배려, 은혜, 고난, 섬김 같은 개념들은 영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인간의 본성은 시간이 흐른다고 바뀌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진리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감정뿐이다. 구세군의 자선냄비도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더 선명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니면 알고 있지만 가끔씩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당황하기 일쑤이다. 시인 이성복은 「그날」이란 시에서 이런 혼란스런 모습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깨달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신비스런 사건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명하신다.

혼란스런 세상이지만 이기적 유전자로 규정되는 ‘나’라는 한계를 넘으면, 세상은 살만해진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 스펙, 재산이 아니다.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들의 마지막을 가늠할 것이다.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이다. 마인드는 삶의 설계도와 같다. 올바른 마인드가 있어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마인드는 여러분 각자가 붙들고 사는 키워드가 보여준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행간을 읽는 것이다. 키워드는 그것을 보여주는 힌트이다.

인간은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휴식과 레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 우리는 오락이 넘쳐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TV, 영화, 음악, 스포츠, 취미 같은 콘텐츠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고 독점할지를 안다. 그래서 가치 있고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정신능력은 시들고, 묵상에서 오는 깊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든다. 그 때문인지 로마시대엔 그리스도의 성탄일을 과식과 만찬으로 축하했다. 오늘날엔 그 자취가 쇼핑을 즐기고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날로 나타난다.

화려한 불빛, 넘치는 캐럴, 혹은 들뜬 분위기 탓인지, 사랑에 대해 넉더리가 날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인류가 2천년 동안 크리스마스란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이는 어느 시대나 적었다.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전통은 많은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흩어져 있던 가족이 모이고, 식탁에선 웃음꽃이 피어나고, 아이들은 선물을 풀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

다. 1차 대전의 전쟁터에선 크리스마스 때 휴전을 하기도 했다.

한국 크리스마스의 역사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떠들썩한 축제이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예수가 사라진 자리에 쇼핑객들이 넘쳐난다. 성탄을 어떻게 기념하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의(義)로 여기셨다. 성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가 베들레헴이란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 역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크리스마스가 한국 땅에선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교회사에서 크리스마스가 교회절기로 제정된 것은 354년의 일이다. 미국의 경우 1870년부터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선 1885년부터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 산타 클로스는 1900년도에 처음 등장한다. 매티 윌콕스 노블(Mattie Wilcox Noble) 부인의 일기는 좋은 자료가 된다. 1893년 12월 25일날 쓴 일기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교환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노블 부인은 선물교환을 기록한 뒤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준다.

며칠 전에 나는 우리 어학 선생에게 이웃의 부인들을 오후에 초대하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해 놓았다. 이 날은 우리의 큰 명절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우리의 축복 받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예수에 대해서 들어 보지도 못했다. 오늘은 그들에

게 예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초창기 자료인 『독립신문』이나 『매일신보』, 혹은 『대한크리스도인회보』를 살펴보면 크리스마스가 매우 빠르게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것을 보게 된다. 1896년 『독립신문』에서 크리스마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불과 3년 뒤인 1899년엔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대한크리스도인회보』에선 이렇게 적고 있다. “서울 성 안과 성 밖에 예수교회당과 천주교 회당에 등불이 휘황하고 여러 천만 사람이 기쁘게 지나가니 구세주 탄일이 대한국에도 큰 성일이 되었더라.” 그리고 1936년 『매일신보』는 기사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그래서 안 보이는 것들

선물은 종종 물건으로 오해된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의 시간, 친절, 위로일 때가 많다. 세상이 넓고 많은 것을 원할 때 크리스천은 깊고 좁은 것을 고집해야 한다. 실제론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간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통념을 뒤집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마다 누가는 말씀으로 깨우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이야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는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이야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잃어버리고 있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한 예이다. 1965년 12월 9일 CBS 방송국에서 처음 방영된 이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찰리 브라운이란 만화 캐릭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찰리가 누구라도 좋으니 크리스마스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자, 친구 스누피(Snoopy)가 이렇게 알려준다.

그 당시 들판에는 목자들이 있었어. 한 밤중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 ‘오, 저기 봐!’ 주님의 천사가 그들 위에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천사를 비추고 있었어. 목자들도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 그때 천사가 말했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니. 이는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너희에게 보여줄 증거가 이것이니 포대에 싸여 말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수많은 천사가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야, 찰리 브라운.

오 헨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 찰스 디킨스의 중편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오드리 헵번이

1992년 크리스마스 때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샘 레벤슨(Sam Levenson)의 시는 모두 한 가지를 보여준다. 이야기는 사람들을 깨어 있게 하고, 현재에 충실하게 하고, 살아 숨 쉬도록 한다는 것이다. 찰리 브라운이 만화 피너츠(Peanuts)의 작가 찰스 슈츠의 페르소나란 말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작가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것이 독자에게 그대로 파급된다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읽을 줄 아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쓴 『인생』에 보면 가난한 나라에 단기선교를 간 여학생 이야기가 나온다. 먹지 못해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짜증이 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평생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 순간, 자신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학생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다. 우리에게겐 크리스마스의 행간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

* 지난 1년 동안 이정일 교수님의 연재칼럼을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 | 이정일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콧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